



2018광주비엔날레가 열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전시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굽직한 미술행사 다채... 올해 풍성했다

2018 문화계 결산 <1> 미술

2018년 광주·전남 문화계에서는 2018 광주비엔날레, 청룡영화상 단편상 수상, 광주문화관 부지 1차 선정 등 이야기거리가 풍성했다. 올 한해 지역문화계 흐름과 현안을 미술, 공연, 문학, 문화재 등 4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올해 광주·전남 미술계는 굽직한 행사가 많아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수확을 거뒀다. 세계적인 전시축제로 자리매김한 광주비엔날레가 관람객들을 만났고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도 첫 선을 보였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시립미술관에서도 화제의 전시가 열렸으며 개성을 갖춘 미술관과 갤러리도 속속 문을 열어 지역 문화 인프라를 튼실하게 했다.

'상상된 경계들(Imagined Borders)'을 주제로 열린 2018 광주비엔날레(9월7일~11월11일)는 66일간 모두 32만명에게 다녀가며 인기를 끌었다.

43개국 165명 작가가 참여해 300여 점을 선보인 이번 전시에서는 11명의 큐레이터가 7개의 주제전을 통해 지구촌의 이주와 난민, 식민, 냉전, 인터넷 격차, 젠더와 인종 등 보이지는 않지만 현대 사회를 더더 '견고해지'는 다양한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생각거리를 던져주었다.

'북한미술: 사회주의 사실주의 패러독스'전이 눈길을 끌었으며 광주정신의 지속 가능한 역사와 담론의 시각화를 위한 신작 프로젝트 'GB커미션'에 참여한 아피차퐁 위라세타쿰 등에 의해 새롭게 전시공간으로 탄생한 구 국립광주병원 본관 및 국광교회는 올해 행사에서 가장 많이 회자됐다.

광주비엔날레, 다양한 주제전·北미술 등 전시...32만명 관람 '전통수목 재발견'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목포·진도서 첫 문화전당·시립미술관 기획전...미술관·갤러리 속속 등장

지난해 프레 오픈 행사를 거쳐 올해 첫 발을 내딛은 2018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에는 두 달의 대장정 기간 동안 29만여 관람객이 다녀갔다.

'오늘의 수목, 어제의 물고 내일에 답하다'란 주제로 열린 올해 행사에는15개국 266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전통수목의 재발견'이란 주제로 윤림산방 등 진도권에 서, '현대수목의 재창조'란 주제로 목포권에서 열린 행사에는 모두 312점이 전시됐으며 진도권에선 실경산수화를 포함해 전통수목을, 목포권에선 각각각색의 종이류와 스티로폼, 천, 나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현대수목의 재기발랄한 표현을 볼 수 있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기획한 '베트남에서 베를린까지'전은 올해 가장 눈에 띄는 전시였다. '강렬하고 날 선 회화로 만나는 현대사'였던 이번 프로젝트에는 베트남 전쟁이 시작된 1960년대부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0년까지 격동의 현대사를 회화, 드로잉, 판화로 풀어낸 25개국 50여명의 작품 170점이 전시됐다.

역시 전당이 기획한 영화감독 박찬욱, 현대 미술 작가 박찬경 형제의 '파킹 잔스' 전도 화제를 모았다. '반신반의', '격제지감' 등 단편 영화 6편과 미공개 사진작품, 뮤직비디오 등을 만나는 대규모 전시로 '아가씨', '올드보이' 등으로 많은 팬을 갖

고 있는 박찬욱 감독과 찬경 형제의 '시네마 토크'에는 많은 참가자가 물리기도 했다.

광주시립미술관도 올해 다채로운 전시를 선보였다.

20세기 위대한 반전평화 예술가 케테 콜비츠, 양심적 일본인으로 광주 오월 항쟁 등 동아시아의 역사적 아픔을 형상화 한 도미야마 다에코, 민중들의 삶과 신명을 표현한 한국 대표 민중미술작가 오윤의 판화 작품을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세계 민중 목판화'는 가장 돋보이는 전시였다.

또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한 '천년의 하늬, 천년의 땅'전, 프랑스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정 작가 초청전, 송창작가 초대전, 올해 10주기를 맞은 박은용 전, 사진작가 노순택전 등도 눈길을 끌었으며 '미술관 아카데미', '이창용의 그림 읽어주는 남자' 등 다양한 강의 프로그램에도 참여자가 몰려 눈길을 끌었다.

한편 관심이 높았던 신임 광주시립미술관장에 전승보 전 수원시립아피자크미술관 전시감독이 선임돼 관심을 모았다. 미술관 26년 역사상 처음으로 화가가 아닌 큐레이터 출신이라는 점, 지역 사람이 아닌 외부 인사라는 점에서 화제였던 전 관장이 앞으로 어떤 미술관을 만들어갈 지 지켜 볼 일이다.

그밖에 젊은 기획자 그룹의 거점인 문화공간들의 활동도 눈에 띄었다. 바림, 오버랩, 지구발전포럼, 바림, 뽕뽕브릿지 등은 개성있는 프로젝트와 전시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광주 곳곳에 갤러리와 미술관도 문을 열었다. 5월 무등산 자락에 서양화가 김도영 작가가 개관한 '드영미술관'은 멋진 건물 외관과 함께 3개의 전시실, 교육실, 카페 등을 갖추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전시실 중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청년 작가전을 열 계획이다.

조선대에서 미술이론을 강의하는 장민한 교수가 산수동 2층 가옥을 개조해 4월 문을 연 '산수미술관'은 전시회를 열 때마다 비평가들이 참여하는 크리티컬 행사를 함께 진행, 다양한 담론을 생산하는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10주기를 맞은 고(故)이강하(1953~2008) 작가를 기리는 '이강하미술관'도 2월 문을 열었다. 작가가 30년 넘게 살았던 광주시 남구 양림동의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한 이강하 미술관은 유족이 작품 400여점과 유품 134점을 기증하면서 문을 열게 됐다.

서양화가 노의웅 작가가 '오랜 꿈'이었던 미술관을 광주시 남구 양과동 수촌마을에 문을 열었다. 고등학교 시절 작품부터 3000여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직접 차를 대접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편한 공간으로 운영중이다. 또 공예가 이남희씨가 광주시 남구 산수동의 40년된 한옥을 개조해 문을 연 '손길 갤러리'에서도 다채로운 전시가 열리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남도의 섬-물결

남포미술관 내년 1월까지 이지호 초대전

남포미술관(관장 곽형수)은 올해 마지막 전시로 한국화가 이지호 초대전을 진행중이다.

'섬-물결'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다도해에 펼쳐진 섬들과 그 섬을 휘감아도는 물결을 독특한 미감으로 표현한 작품 30여점을 선보인다.

이 작가는 서화와 소리 가락의 향기가 사계절 가득한 섬 '진도', 잔물결이 해안선을 따라 굽이치며 해변을 헤집고 모래성을 쌓는 섬 '신안', 기암괴석의 영암 땅 월출산을 따라 청해진의 기상이 넘치는 섬 '완도'까지 서로 비슷하지만 조금씩 그 형상을 달리하며 저마다의 숨결과 무늬를 내뿜는 섬들을 운율감 넘치는 화면에 담아냈다. '삼학도', '홍도와 원주리꽃' 등 다도해의 아름다움을 담은 작품들과 더불어 '황혼빛의 소안도' 등 200호 대작들도 함께 전시된다.

민화풍의 화면 구성과 오방색의 강렬한 색감이 돋보이는 그의 작품은 동양의 전통 회화양식을 차용하고 있지만 전반



이지호 작 '삼학도'

적으로 현대적 회화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광목 캔버스와 아크릴을 주된 재료로 사용하면서도 기존의 채색화 사용 기법을 응용하는 등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목포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홍익대 미술학 석사, 조선대 미술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 작가는 36회의 개인 초대전과 국내외 다수의 기획전 및 단체전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현재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 자문 및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목포 최초의 사립미술관인 아트센터 신신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다. 전시는 내년 1월 30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061-832-000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서구문화원, 지역문단 산실 부상

'늦깎이 시인' 임인택 등 3년간 6명 등단

광주 서구문화원이 늦깎이 시인을 배출하는 지역문단 산실로 떠올라 눈길을 끈다.

최근 시 전문지 '시와 사람' 2018년 겨울호에 '아무르강에서 온 편지' 외 4편으로 신인상을 수상한 임인택(사진) 씨를 포함해 지난 3년간 6명이 시인으로 등단했다. 이들은 모두 서구문화원 빛고을문화교실 문예창작반에서 창작공부를 했다.

임인택씨는 지난 2년 동안 매주 금요일 문예창작반에서 창작을 하며 강사들로부터 지도를 받았다. 고희의 나이에 이룩한 성과로 임 씨는 주위의 부러움을 샀다.

그는 "매주 1편 이상의 창작 시를 제출하는 등 지도를 받아오면서 시적 역량을 키웠다"며 "직장에서 행정직으로 일하다가 퇴직 이후 주위 사람들이 미술, 음악 등의 문화예술에 관심있는 것을 보고 문학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인상 심사위원회는 "작품으로만 보



면 그는 분명 청년일 정도로 신인다운 패기가 있다"면서 "다양한 주제들을 시로 형상화하고 있어 아직은 그의 시적 세계를 가능하게

기 어렵지만 오히려 다양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평했다. 이밖에도 최근 문단에 등단한 허문정, 전종훈, 김재정, 장미자씨 등도 문화원 문예창작반에서 공부를 했다. 지난 2005년에 등단했던 이겨울씨는 등단 이후에도 꾸준히 문예창작반에서 꾸준히 활동을 했다. 그 결과 국제펜광주문학상 올해의 작품상에서 '바람에 눈을 뽀 구름'으로 수상을 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pproved Partner Hearing Instrument SIEMENS

새로운 소리를 듣다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2018-2019 신양파크호텔 겨울축제

기간: 2018.12.1(토) ▶ 2019.2.28(목)

- 축제 1. 객실 겨울 패키지: 객실 리모델링 기념 60% DC
- 축제 2. 1층 레스토랑 "티파니" 감사축제: 커피 3,000원, 돈까스 코스 18,000원, 안심스테이크 코스 50,000원
- 축제 3. 신양파크호텔 사우나 이용권 증정: 1층 티파니 이용고객 ₩15,000당 사우나 이용권 1매 증정 (연회장 및 조식 이용 고객 제외)

신양파크호텔 예약문의 ☎ (062)228-8000, 221-4101